

타이완, LCD 디스플레이 구조조정

공적자금 7조원 투입해 합병 후 대형화 유도 ... 경영부진 심화 대응

타이완 정부가 LCD(Liquid Crystal Display)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타이완 공상시보는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가 경영난을 겪는 LCD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미래 경쟁력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월21일 보도했다.

경제건설위는 “1800억T달러(약 7조2000억원)의 국가발전기금 일부를 투입할 것”이라며 “LCD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의 합병을 유도해 2011년 말까지 1-3개의 대기업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지원은 타이완 LCD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치메이(ChiMei)는 1-9월 순손실 44억5000만T달러(약 1조7780억원)로 5분기 연속 순손실을 나타냈고, AUO도 3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경제건설위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주문이 줄어들었고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 관련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완 정부는 LCD디스플레이 외에 태양광 등 녹색에너지산업, 고령화 관련 건강·의료산업 등을 국가발전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21>